

SKT ‘AI’와 스타벅스 ‘환경소비’ 만났다

‘일회용컵 없는 제주’ 본격 시동

**- 6일부터 제주공항, 제주지역 4개 스타벅스 매장에서 무인 다회용컵 반납기 운영**

**- SKT, 인공지능 고도화 및 서비스 운영 맡고 반납기 제조 스타트업과 동반성장 지속**

**- 다회용컵은 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 운영 세척장에서 자동화 공정 통해 위생적으로 관리**

|  |
| --- |
| **엠바고 :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2021. 7. 6] -사진보도자료-**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 [www.sktelecom.com](http://www.sktelecom.com))은 제주지역의 폐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이 적용된 무인 다회용컵 회수기를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SK텔레콤은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스타벅스코리아, 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 친환경 스타트업 오이스터에이블 등과 함께 제주도의 자연을 지키기 위한 환경 소비\* 권장 차원에서 ‘에코제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 소비자가 제품을 소비할 때, 제품과 제조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소비하는 행태.

프로젝트 참여 기관 및 기업들은 일회용컵 없는 매장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6일부터는 스타벅스 제주서해안로DT점, 제주애월DT점, 제주칠성점, 제주협재점 등 4개 시범매장에서 음료를 다회용컵에 담아 제공하고 있다.

‘에코제주 프로젝트’ 참여사들은 오는 10월까지 제주지역 스타벅스 전 매장의 일회용컵을 다회용컵으로 전면 교체하고, 이후 제주 토종 프렌차이즈 커피전문점인 에이바우트커피와 핀크스 골프클럽 등으로도 다회용컵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SKT와 스타벅스는 고객이 음료 구매 시 보증금 1,000원을 지불하고 다회용컵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해피해빗 앱\*\*과 스타벅스 앱을 개편했고, 스타벅스 시범매장 혹은 제주국제공항에서 사용을 마친 컵을 반납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인 다회용컵 회수기를 설치했다.

\*\* 민관 연합체 ‘해빗 에코 얼라이언스’가 텀블러 및 개인용 머그컵 사용자들의 참여 실적을 관리하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서비스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SKT는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무인 다회용컵 회수기가 지정된 컵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비전 AI(Vision AI) 기반의 데이터 적재·학습·배포 작업을 계속해 왔다. 이를 통해 다회용컵 회수기 제조를 맡은 환경 스타트업 ‘오이스터에이블’과의 동반성장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회수된 다회용컵은 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가 운영하는 세척장으로 옮겨지며, 다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소독·고압세척·살균건조 작업을 거친다. 다회용컵은 순수 폴리프로필렌(PP)으로 제작되어 수명이 다해도 100% 재활용할 수 있다. 이처럼 세척장 운영을 통해 마련된 재원은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SKT 윤풍영 코퍼레이트1센터장은 “SK텔레콤은 에코제주 프로젝트 초기 기획 단계부터 다회용컵 적용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협력 기업들과 힘을 모아 제주도의 청정 자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 --- |
| **※ 사진설명**SK텔레콤은 제주지역의 폐플라스틱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이 적용된 무인 다회용컵 회수기를 본격 가동한다고 6일 밝혔다. SKT와 스타벅스는 고객이 다회용컵을 대여할 수 있도록 고객용 어플리케이션을 개편하고, 제주시내 4개 시범매장과 제주국제공항에 무인 다회용컵 회수기를 설치했다.사진 1~3: 제주 관광객들이 제주국제공항 안에 설치된 무인 다회용컵 반납기를 통해 사용을 마친 컵을 반납하는 모습사진 4: 스타벅스 매장에 설치된 무인 다회용컵 반납기와 해피해빗 앱을 이용해 다회용컵을 반납하는 모습사진 5~6: 사회적기업 행복커넥트 직원이 회수된 다회용컵의 소독, 고압세척, 살균건조 작업을 통해 다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작업하는 모습 |

**▶ 관련문의: SKT PR실 전략PR팀 우현섭 매니저 (02-6100-3854)**

**<끝>**